

도시아카이브의 방향과 「파사주프로젝트」 적용에 관한 연구

- 발터 벤야민의 사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Archives Building Direction and Application Method: Walter Benjamin's Thought

여진원(Jin-Won Yeo)*

장우권(Woo-Kwon Chang)**

<목 차>

I. 서론	의 적용
II. 이론적 배경	1. 시애틀(Seattle)의 도시아카이브
1. 도시 공간의 이해	2. 조계와 아시아
2. 아카이브의 개념과 도시아카이브의 필요성	3. Connecting Histories
3.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프로젝트』	4. 시사점과 도시아카이브 모형
4. 선행연구	IV. 도시아카이브의 방향과 적용
III. 도시아카이브 사례와 『파사주프로젝트』	V. 결론

초 록

도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 연구는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벤야민의 도시읽기와 기록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아카이브의 사례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아카이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시를 담는 미래의 아카이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도시, 아카이브, 도시아카이브, 발터 벤야민, 『파사주프로젝트』, 파사젠베르크, 아케이드 프로젝트

ABSTRACT

The City is not simple space run daily life but shows the space of cultural memory and trace. This study examined Walter Benjamin Passge Project, and how to read and record the city of Benjamin discussed. In addition, research and how to apply to the archives of the city is made based on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the Urban Archiv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archive that holds the future of the city.

Keywords: City, Archive, Urban archive, Walter benjamin, Passge project, Passagen-werk, Arcade project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수료(yeopo_81@hanmail.net)(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wk1961@jnu.ac.kr)(교신저자)

• 접수일: 2013년 5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3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3년 6월 27일

I. 서론

“도시의 모습은 변한다. 아! 그 모습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한다.”

- 자크 로보(Jacques Roubaud)¹⁾

현재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와 흔적들이 모여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현대에 있어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의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는 도시의 공간은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도시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다. 즉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²⁾ 이런 도시 공간의 기억과 흔적들을 살펴보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며,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도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과거와 현재의 기록된 도시의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담겨져있는 내용을 문화적·역사적, 시·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도시에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사상가였던 발터 벤야민은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등의 유럽 대도시 뿐만 아니라 리가, 마르세이유, 나폴리, 피렌체, 벨린초나 등의 도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의 도시 연구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파사주 프로젝트』³⁾이다. 그의 연구는 19세기 파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인용문과 경구의 몽타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비극적인 자살로 인해 이러한 연구들이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는 술한 사연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였다. 19세기 파리 파사주를 연구 주제로 삼아 진행된 이 작업은 비록 불완전한 형태지만 그가 생각했던 도시에 대한 궤적과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벤야민의 도시읽기와 기록방법에 대한 고찰과 도시아카이브의 사례조사와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나타난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아카이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시를 담는 미래의 아카

1) Jacques Roubaud, 어떤 도시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한다(파리 : 갈리마르 출판사, 1999).
2) 심혜련, “문화적 기억과 도시공간, 그리고 미적체험: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3권, 제1호(2008), p.65.
3) 파사주 프로젝트는 파사젠베르크(Passagen-Werk)라고도 하며, 국내의 번역서에는 아케이드프로젝트(Arcade Project)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는 파사주 프로젝트로 통일하였다.

이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 공간의 이해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흔적(Spur)을 남긴다. 인간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자신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서 사라질 수 없다. 하다못해 자신의 독특한 냄새라도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또 추억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을 발굴해낸다.⁴⁾ 도시 공간만큼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다. 도시 공간에 남겨진 대부분의 개인적 흔적들은 비의도적이며, 물질적이며 그리고 부재함의 현존 그 자체다. 그러나 도시는 이러한 사소한 개인적 흔적뿐만 아니라, 역사적 흔적도 간직하고 있는 흔적의 보고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개인의 흔적과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의 흔적과 집단적 기억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시 공간 곳곳에서는 집단의 흔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다. 또 집단적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많은 기념물들이 있다. 그 기념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⁵⁾

또한 도시는 하나의 장소이며, 특히 의미의 중심이다.⁶⁾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우연적 사건과 필연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간, 물질, 기억의 흔적들이 적층된 퇴적체이다. 그 흔적들은 도시의 형성물-장소, 길, 건축물, 공간, 표면 등-에 파편화되어 숨겨져 있으며, 도시의 문제-기억의 단절, 흐름의 단절, 맥락과의 단절-를 진단하고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부분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이미지로서 기억하게 된다.⁷⁾ 이러한 이미지로서의 기억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 다시 돌아보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로서의 역할로 기록을 보존하게 되었다.

2. 아카이브의 개념과 도시아카이브의 필요성

아카이브(archives)란 후세의 이용 가치를 위해 보존하는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러한 기록물을

4)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제19권, 제3호(2008), p.105.

5) 박규현, 다공성과 도시읽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12), p.7.

6)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서울 : 도서출판 대운, 2005), p.278.

7) 임우재, 기억의 장소로서 도시 건축(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3), p.6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2호)

관리하는 기구를 말한다. 아카이브의 개념은 연구자들에게조차도 일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현대사회는 기록물의 의해 구축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탱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⁸⁾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보존자료의 선별과 평가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책임지고, 보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의 일정을 의미하기도 하며, 기록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나 부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아카이브는 기록자체, 행위나 기관 혹은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항상 실용적인 이유로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록을 보존하는 일은 단연코 실용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기록의 보존은 구체적인 시점이나 특정 용도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지만 기록 생산자나 관리자가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된다. 오늘날 기록된 정보는 언젠가 다시 필요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서도 그러한 이용의 유효성이나 효력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법적·경제적·도구적 목적에서 생산된 기록은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정보로서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므로 당연히 세밀하게 보존된다.

한편으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는 사적·사회적·상징적 이유 등 비실용적 측면도 있다. 기록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기억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점이 기록을 보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즐거운 기억은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비록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교훈이 될 경험들은 매번 일깨워 다짐하려 하는데 그런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거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인간이 기록을 보존하는 일은 일반화되어 있다.⁹⁾

이 연구에서는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상기의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와 특징들로부터 범위를 좁혀 '해당 도시에 관련된 가치를 갖는 기록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분류·정리·활용된 기록물들의 총체 혹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아카이브의 생산과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립아카이브(municipal archives)로 부르기도 하며, 이 아카이브 역시 도시아카이브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도시아카이브의 생산과 운영의 주체는 도시 안에 삶을 영위하는 도시 구성원 전부를 말한다.

최근 도시의 발생에 있어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도시가 유사한 환경의 모습을 띄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상실과 획일성의 만연으로 도시의 고유한 특성과 매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 내 시민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도시환경에 대한 쾌적성과 심미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다양하고 독특한 도시 고유의 개성을 살

8) 유광흠 등,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경기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10.

9) James M. O'Toole, 기록의 이해, 이승익 역(서울 : (주) 진리탐구, 2004), pp.30-31.

리기 위한 노력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한 도시아카이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아카이브 구축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도시 모습을 수집하여 기록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모하는 도시의 기록들은 삶의 원칙들과 실제양상에 대한 이해와 해답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역사의 복원과 보존, 경제적 수익 창출, 도시재생의 도구, 미래도시계획의 청사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3.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

가.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유대계 독일인으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문학평론가이며 철학자로서 불안한 파시즘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독일 나치즘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고만 비운의 사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독일에서 나치즘에 의해 프랑스로 망명한 그는 파리에 머물면서 파리라는 도시를 상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가 파리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파사주(Passage)¹⁰⁾였다. 그는 세상을 알레고리¹¹⁾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즉, 경제적 구조,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문화로 나타났는지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가 아케이드에 주목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른 이의 텍스트를 읽었다. 그에게 텍스트는 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호 체계 자체를 그는 텍스트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도시, 근대의 파리라는 메트로폴리스는 술한 사연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였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일기는 고고학적인 것이고 모든 쓰기는 건축학적인 것이다. 도시는 그에게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 폐허의 유물이었던 셈이다.¹²⁾ 벤야민의 도시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도달하게 되는데 다음의 『파사주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10) 파사주(Passage)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놓인 통행로를 보통 철골과 유리로 만든 천정으로 서로 연결하여 사치품과 신상품의 진열 및 거래를 목적으로 활용한 대도시 상점 거리를 가리킨다. 이 실체는 19세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도시의 제반적인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일상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사주는 천정이 덮인 아치형의 건축술을 가리킨다.(고지현, 꿈과 깨어나기(서울 : 유로서적, 2007), p.47.

11) 알레고리(Allegory)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표현 양식으로, 주로 문학에서 사용된다. 때론 우의(寓意), 풍유(諷諭)로 불리기도 한다(출처: 위키백과/인용, 2013. 5. 10). <<http://ko.wikipedia.org>>

12) 이택광, “모던 보이 벤야민, 파리를 거닐다 :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읽기’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13권, 제2호(2008), p.83.

나. 파사주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이 13년에 걸쳐 작업한 원고 형태의 자료를 책으로 묶은 『파사주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술형식과는 달리 방대한 인용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 집적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한 시대의 모습을 자료 자체가 그려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자료를 많이 모으면 그 자료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일성이나 유사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작업의 전제조건이다.¹³⁾

벤야민은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에서 공히 프로젝트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 심화시켰으며, 결국 에펠탑 꼭대기에서 지하묘지와 지하철의 하계까지 파리 전체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 세기가 넘는 기간에 있었던 이 도시의 상세한 역사를 포함시켰다.¹⁴⁾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벤야민은 파리연구를 주제(권태, 먼지, 유행, 지옥으로부터의 19세기), 역사적 인물(그랑빌, 푸리에, 보들레르 등), 사회적 유형(창녀, 수집가, 도박사, 산보자), 문화적 대상물(파사주) 등을 다루는 방대한 메모와 인용문을 산출해냈다. 메모와 인용문의 분량이 늘어나자 2단계부터는 메모를 분류할 체계를 고안할 필요성을 느꼈고, 중요 모티프를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하여 순번으로 정리를 하기에 이르렀다.¹⁵⁾

<표 1> 『파사주 프로젝트』의 묶음 체계¹⁶⁾

묶음 제목			
A	파사주	a	사회운동
B	모드	b	도미에
C	고대의 파리, 지하묘지, 파리의 지하	c
D	권태, 영원한 회귀	d	문학사, 위고
E	오스망화, 바리케이트 전투	e
F	철골 구성물	f
G	전시, 광고 그랑빌	g	증시, 경제사
H	수집가	h
I	인테리어, 흔적	I	재생산 기술, 석판화
J	보들레르	k	꼬문
K	꿈의 도시와 꿈의 집, 미래의 꿈, 인간학적 허무주의	l	생강과 고대 파리
L	꿈의 집, 박물관	m	게으름
M	산책가	n
N	인식론, 진보이론	o
O	매춘과 도박	p	인간학적 유물론, 당파의 역사
P	파리의 거리	q
Q	파노라마	r	에콜 폴리테크

13) 김우룡, 발터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아카이브사진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2007), p.73.

14) Susan Buck-Morss,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역(파주 : 문학동네, 2004), p.17.

15) 홍준기 등, 발터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서울 : 라움, 2010), p.22.

16) 상계서, pp.21-22.

R	거울		
S	회화, 유겐트 양식, 새로움		
T	조명기구		
U	생시몽, 철도		
V	음모		
W	노동조합, 푸리에		
X	마르크스		
Y	사진		
Z	인형, 자동기계		

『파사주 프로젝트』는 다양한 완성 단계의 시리즈로 구성된 미완성 텍스트이다. 이것은 단일한 저작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고, 새롭게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다시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되고 포기되었던 상호 관련된 시도의 덩어리이다.¹⁷⁾ 벤야민에 관한 한 미국의 권위 있는 교수인 수잔 벅 모스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사제베르크》에서 벤야민은 우리에게 노트 상자를 남겼다. 그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모든 것’을 남겼다. 그의 저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비탄은 적절치 않다. 그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노트들은 부적절하게 완성된 텍스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카드 파일은 더욱 두꺼워졌을 것이다. 《파사제베르크》는 현대성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어휘집이며, 도시 경험의 구체적 이미지 모음이다.¹⁸⁾

벤야민은 항상 대도시의 모든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왜 벤야민은 대도시라는 공간에 몰두하였는가? 대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은 그 자체가 벤야민에게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이었으며, 더 나아가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커다란 “거울 도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1933년 망명이래 죽을 때까지 머물렀으며 또 그가 ‘19세기 수도’라고 일컬었던 파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왔다. 대표적인 대도시 파리에 서 벤야민은 전통의 몰락과 새로운 것의 탄생을 지켜보았다.¹⁹⁾

하지만 『파사주 프로젝트』를 단순히 파리에 대한 관상학적 연구로 기획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파사주 프로젝트』는 19세기라는 역사적 시간 속의 모더니티 형성을 연구하려는 기획이다. 모더니티의 기원 분석을 역사철학이 아니라 도시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벤야민의 기획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적이다. 벤야민의 기획은 모더니티를 공간이라는 범주 속에 위치시킨다. 도시연구를 통해 모더니티의 지점들이 공간상의 좌표를 획득하면서 모더니티 연구는 미학담론의 범주를 벗어난다. 또한 모더니티의 기원을 19세기라는 시간의 축 위에 놓인 파리의 파사주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벤야민은

17) Graeme Gilloch,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역(파주 : 효형출판, 2005), p.205.

18) 상계서, p.206.

19) 심혜련, “새로운 놀이공간으로서의 대도시와 새로운 예술 체험 : 발터 벤야민 이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 14권, 제1호(2003), p.227.

동시에 모더니티의 범주를 시간화한다. 모더니티의 범주를 시간화 함으로써 벤야민은 모더니티를 형이상화 하지 않고 쇠락의 범주로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다.²⁰⁾

다음 절을 통해 벤야민이 어떻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 벤야민의 도시 해석

시간이 흘러 축적된 도시의 흔적들은 도시의 풍경이 된다. 벤야민은 도시를 “온통 삶으로 이루어진 풍경”으로 제시하려 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도시의 풍경을 독해하면 도시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며, 벤야민의 사유와 이론들이 도시를 읽는 열쇠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도시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억의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벤야민이 말했듯이, 도시는 일종의 도서관처럼 많은 자료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²¹⁾ 벤야민은 “과거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과거는 현재 속에서 계속된다.”²²⁾ 라는 말처럼 과거가 가진 잠재성을 지각하고, 도시에 담긴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관찰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하여 벤야민은 도시저작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램 질로크(1996)는 저서의 목표에 대해서 벤야민 식의 독해와 서술, 몰락과 구원, 신화와 대도시의 지형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관상학, 현상학, 신화학, 역사, 정치학, 텍스트 등의 주제어를 통해 도시 풍경을 고찰하였다. 이 주제어들은 벤야민의 도시 풍경의 향배와 지도그리기를 도와줄 일련의 방향과 좌표를 형성한다.

벤야민은 도시 풍경을 통해 도시의 관상을 제시하려 한다. 도시의 관상은 대도시 환경에 대한 독해이자 암호 해독이며, 이 관상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구조 속에 위치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벤야민에게 건물, 공간, 기념물과 대상들이 도시 환경을 구성한다. 도시 환경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 양식에 대한 반응이자 구조이다. 즉 도시의 수많은 모습으로부터 도시의 ‘특성’을 독해할 수 있다.²³⁾ 또한 그는 사회적 행위의 환경과 지표로서, 도시의 물리적 구조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구체적 대상들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도시인들의 사소한 경험을 식별하고 탐구하려 했다. 벤야민은 미세하고 주변적인 도시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벤야민의 도시 풍경은 나폴리의 불쌍사나운 거지, 모스크바에서 전차 타기, 베를린의 작은 만남의 집,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이 함께 목숨을 끊은 곳, 폐허 직전의 황폐화된 파리의 쇼핑 파사주와 그 파사주를 전성기때처럼

20) 홍준기 등, 전계서, pp.27-28.

21) 심혜련, “도시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2호(2012), pp.69-70.

22) Graeme Gilloch, 전계서, p.145.

23) 상계서, p.23.

빈번히 방문하는 평범하지 않은 고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그려내려 한다.²⁴⁾

이와 관련하여 박규현(2012)은 벤야민의 도시읽기의 방법을 이미지·흔적·체험의 읽기로 구분하고 다음의 <표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⁵⁾

<표 2> 벤야민의 도시읽기 방법

읽기 방법	내 용
이미지로 읽기	변증법적 도시이미지 읽기
흔적으로 읽기	산책자로서의 도시 바라보기
체험으로 읽기	일상과 일상경험 분석하기

첫째, 이미지로 읽기다. 벤야민은 이미지로 사유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읽고자 하였다. 기술복제 시대를 예견한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에 작용하는 이미지의 힘에 주목하였다. 벤야민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미지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미지들이 기술적 재생산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도시이미지를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도시 이미지 읽기이다. 변증법적 도시이미지 읽기는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면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말한다. 현재의 시선에서 과거의 도시를 바라보며, 과거의 시선에서 현재의 도시를 바라본다.

둘째, 흔적으로 읽기다. 관상학자로서 흔적 읽기는 도시의 산책자가 되는 것이다. 산책자의 시선은 흔적을 따라간다. 흔적을 읽는 주체, 즉 산책자의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흔적은 흔적 읽기를 통해 가시화된다. 흔적 읽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흔적 읽기의 결과 보다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흔적은 일종의 매개체로서 우리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발견된 흔적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흔적은 관찰자의 눈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적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며 또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²⁶⁾

셋째, 체험으로 읽기다. 벤야민은 대도시의 많은 것들을 새로운 지각의 체험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 파악했다.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대도시라는 공간에서의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벤야민은 주시했다. 『파사젠베르크』에서 벤야민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는, 즉 그 자체가 인간에게 놀이 공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와 대중의 관계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였다. 벤야민은 ‘일상’과 ‘일상의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대도시의 일상적인 현상과 일상에

24) 상계서, pp.24-25.

25) 박규현, 전계논문, pp.9-12.(내용을 보완, 첨가하여 재작성)

26) 심혜련, “도시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2호(2012), pp.79-80.

대한 경험이 바로 분석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 책은 파사주, 유행, 쇼핑몰, 거리의 모습, 조명, 사진, 광고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로 36개의 항목을 구성한다.²⁷⁾

4. 선행연구

벤야민의 『파사주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지만, 그 중 벤야민의 사상을 도시와 연결지어 고찰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심혜련²⁸⁾은 도시 공간을 하나의 문화적 기억과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발터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도시 인상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과 도시공간에 남겨진 흔적 그리고 이를 읽는 산책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미지의 존재방식과 이미지를 수용하기 그리고 이미지를 매개하는 매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임우재²⁹⁾는 본인의 작업을 통해 상실되기 쉬운 도시의 기억을 기록해보고자 했고,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역사적인 경험, 공간에 서려 있는 기억 등을 반추하고자 했으며, 박규현³⁰⁾은 벤야민의 다공성(Porosity)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읽는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 유광흠 등³¹⁾은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말숙³²⁾은 재개발지역의 도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기록물 유형 및 기록화 방식,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민속, 생활사, 지역 아카이브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상 아카이브의 연구로 심성보³³⁾는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행위들의 총체인 일상이 남긴 흔적의 의미와 이것을 아카이빙하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고, 함한희³⁴⁾는 생활사를 위한 기초자료수집의 중요성과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심층적인 문화기술로서의 생활사를 서술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터 벤야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독해와 기록 방법을 살펴보고, 사례로 제시된 도시아카이브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아카이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7) 심혜련, 전계논문, pp.233-234.

28) 심혜련, 전계논문, pp.225-250.

29) 임우재, 임우재, 전계논문, pp.1-67.

30) 박규현, 전계논문, pp.1-65.

31) 유광흠 등, 전계서, pp.1-185.

32) 전말숙,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12).

33) 심성보, "일상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구, 제5권(2011), pp.73-92.

34) 함한희,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활용," 영남학, 제14호(2008), pp.7-33.

Ⅲ. 도시아카이브 사례와 『과사주 프로젝트』의 적용

이 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아카이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서 살펴보았던 벤야민의 도시읽기의 방법인 이미지·흔적·체험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위해 문헌자료와 웹페이지 조사를 통해 가장 유사한 사례로 미국 시애틀의 'Urban Archives', 일본 카나가와 대학 21세기 COE프로그램 중 하나인 '조계와 아시아', 영국 버밍엄시의 'Connecting Histories'가 선정되었다(〈표 3〉 참조).

〈표 3〉 도시아카이브 사례

국가	아카이브 명칭	대상	내용	도시읽기방법
미국	Urban Archives	도시의 시각적 경관	눈에 띄지 않거나, 없어질 것 같은 일상의 도시텍스트 조명	이미지로 읽기
일본	租界とアジア	중국 상해의 1930년대 일본 조계지	일본인이 살고 있던 당시 실태와 현재의 흔적 비교	흔적으로 읽기
영국	Connecting Histories	영국 버밍엄 내 다양한 커뮤니티들	버밍엄의 다양한 커뮤니티 역사에 대한 기록	체험으로 읽기

이와 같은 도시아카이브들이 선정된 이유는 이들이 벤야민의 도시읽기방법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들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외의 도시아카이브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아카이브들에 대해 그들 앞으로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1. 미국 시애틀(Seattle)의 도시아카이브³⁵⁾

가. 개요

도시 아카이브(Urban Archives)프로젝트는 2003년 도시 환경, 민속지, 시각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심을 갖은 워싱턴 대학 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학 석사과정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도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제도적 수집정책에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던 일시적인 예술품이 주요 관심사였다. 도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시애틀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일상의 이미지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시각적 경관, 즉 낙서, 유명 사인(ghost signs), 오래된 건축물, 공공 도로표지판 등 다수의 텍스트를 조직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 리스트를 만들었다.

35) 전말숙, 전계논문, pp.94-95.

나. 특징

도시 아카이브는 개방형 홈페이지³⁶⁾로 구축되어 개인이 홈페이지에 기록물을 올리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도적 요소, 디지털 기술, 협동적/대화적 교육법 등의 병합을 통해, 문화유물/데이터를 (재)표현하거나, 혹은 해석을 통해 도시 공간에 대해 다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미지 정보, 메타데이터, 디지털 이미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장서를 이용하여 도시아카이브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컬렉션별 종류 및 종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시애틀 도시 아카이브의 컬렉션별 종류 및 종수

컬렉션 종류	종수	내용
문화유산 안내 (Electric Signs)	30	유서 깊고 동시대적인 간판, 표지
정원예술 (Yard Art)	32	개인 마당에 표출된 장식품, 예술작품 또는 정치적 사인 등 포함
유령사인과 벽화 (Ghost Signs & Painted Walls)	55	오래된 광고 이미지와 건물 외부 벽화
시애틀 전경 (Seattle Views)	427	시애틀의 특정 이벤트와 장소 포함. 허부 컬렉션은 특히 시애틀 관련 이미지 부속
지시 라벨 (Hand Styles)	70	작품의 저작자나 제작자를 지시하는 태그나 라벨
창 (Windows)	62	채색된 창문과 창문 장식

2. 조계와 아시아

가. 개요

2002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이 시작한 "21세기 COE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연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대학 지원책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을 가진 대학이 그 대상에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경쟁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카나가와 대학 대학원 역사 민속 자료학 연구과와 일본 상민 문화 연구소, 외국어 대학원 중국 언어문화 전공이 더해져, 학제적으로 연구 사업을 전개하는 구상이었다. 지금까지의 문화 연구는 문자로 기록된 사건에 독점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 특징

프로그램은 (1)회귀, (2)신체 기법, (3)환경·경관의 3 가지로 구성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해 자료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축적하고 축적 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신하는 것을 목적으

36) Urban Archive. <http://urbanarchives.org> [cited 2013. 5. 10].

로 하였다. 또한 각각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조직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카나가와 대학 21 세기 COE 프로그램 과제

주제	과제명
회귀 자료의 체계화와 정보 발신	"다중 언어 버전 그림 두루마리의 일본 상민 생활 그림 상황"의 편찬 간행
	"일본 근세·근대 생활 그림 상황"의 편찬
	'동아시아 생활 그림 상황'의 편찬
신체 기법과 감성의 자료화 및 체계화	신체 기법의 비교 연구
	공구와 인간행동의 관계 분석
	경관의 시계열적 연구
환경과 경관의 자료화 및 체계화	환경 인식과 그 변천 연구
	환경에 각인 된 인간 활동과 재해의 흔적 해독
통합 정보 발신	
실험 전시	고급 직업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실험 전시
이론 총괄 연구	

이 중 '조계와 아시아'³⁷⁾는 중국 상해의 1930년대 일본 조계지를 대상으로 가로, 공장, 부설일본인 사택, 중국인노동자주택 등 일본인이 살고 있던 당시의 실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의 흔



<그림 1> 조계와 아시아 데이터베이스

37) 조계와 아시아 데이터베이스, <<http://www.himoji.jp/database/db05>> [cited 2013. 5. 10].

적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담고 있다. 자료로는 사진과 도면, 문자자료, 인터뷰 등이 있다. 검색화면에서는 도면을 클릭하여 해당지역의 모습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건축물의 위치, 건설년대, 설계자, 건축 면적, 연면적, 건물 동수, 호수 등의 정보까지 표시된다.

3. Connecting Histories

가. 개요

‘Connecting Histories’³⁸⁾는 버밍엄 시티 아카이브(Birmingham City Archives)의 주도로 버밍엄 대학교의 교육대학, 워위크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회학과, 흑인의 과거와 버밍엄의 미래 그룹(Black Pasts, Birmingham Futures group)과 협력하여 2005년 2월에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마무리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 버밍엄시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역사에 대한 문서와 사진 제공, 2) 각기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는데 지원, 3) 지역사회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에 활용하는데 지원하는데 있다.

나. 특징

구축된 아카이브의 카테고리로는 크게 컬렉션, 교육, 전시, 지침, 버밍엄 스토리, 검색, 당신의 앨범 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의 특징은 <표 6>과 같다.

<표 6> ‘Connecting Histories’의 카테고리

카테고리명	특징
컬렉션 (collections)	버밍엄시 내 개인, 커뮤니티, 장소 등에 관해 사진과 설명을 수록
교육 (learning)	버밍엄 사회 역사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 패키지
전시 (exhibitions)	버밍엄 도시 이야기와 지도의 수록, 커뮤니티와 사진 등의 전시
지침 (guidance)	아카이브 기반 프로젝트의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언
버밍엄 스토리 (birmingham stories)	온라인 연구가이드와 연습문제를 이용하여 도시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컬렉션 제공
검색 (search)	사람, 장소 및 테마목록에서 검색하거나 미디어 시대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고급검색을 수행
당신의 앨범 (your album)	자신의 기록(웹사이트 내 사진이나 기사)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공

38) Connecting Histories.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project.asp>> [cited 2013. 6. 19].

또한 'Connecting Histories'의 특징은 공공아카이브가 주관한 사업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 제공하였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록의 수집 및 관리에 참여하였다. 특히 기록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Archivist) 양성을 중시하였다.³⁹⁾

4. 시사점과 도시아카이브 모형

이상과 같이 살펴본 아카이브들은 벤야민의 도시읽기 방법이 적용되어진 유사한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도시아카이브 사례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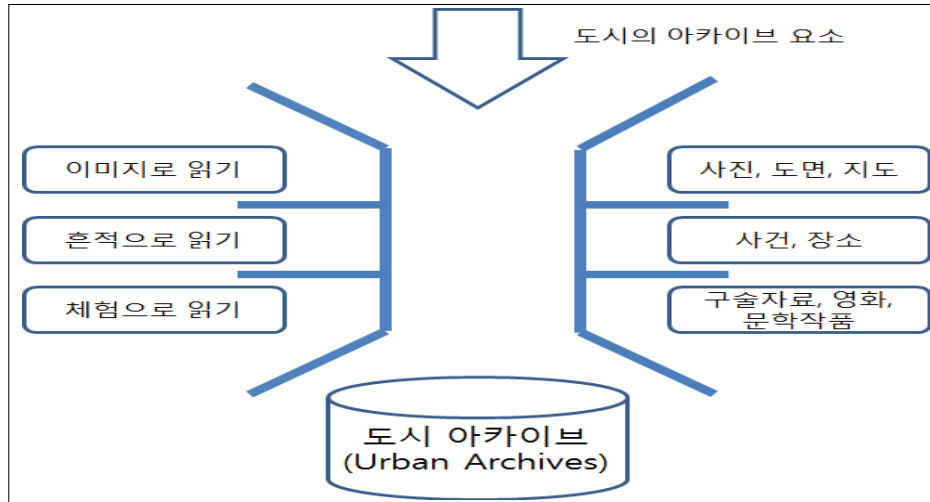
첫째, 사진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경관이나 주요 건축물의 모습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이야기와 특징을 찾아내어 기록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은 도시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이나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이 친숙한 이미지나 장소의 기록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소장자료의 수집·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도시 기록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 기록을 구축하고 제공받음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였다. 구축된 아카이브를 토대로 시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며, 각자가 도시의 역사의 수호자로서 아키비스트(Archivist)가 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구축·활용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도시 내 기관이나 대학, 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물적·인적 지원체계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정보 공유차원뿐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해당 도시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각각의 아카이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벤야민의 도시읽기 방법을 도시아카이브에 접목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나타난다.

39)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권(2012), p.31.



〈그림 3〉 파사주 프로젝트가 적용된 도시아카이브 모형

도시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시아카이브의 자료로 구축되어지게 된다. 이미지로 읽기에서는 사진, 도면, 지도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도시안의 여러 형태의 시각이미지들을 포함하는 아카이브의 작업이 필요하다. 흔적으로 읽기에서는 과거 사건이나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공간)으로 나타나며, 장소의 보존과 복원이 필요하다. 체험으로 읽기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구술자료와 시대상을 나타내는 영화나 문학 등의 예술작품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 자료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다음은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와 필자가 적용한 ‘Urban Archives’, ‘租界とアジア’, ‘Connecting Histories’들의 특징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도시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가 갖춰야 할 내용들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IV. 도시아카이브의 방향과 적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아카이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편향적으로 치우쳐있는 소장기록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외의 도시아카이브 사례 분석과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내 도시아카이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놓치기 쉬운 사진자료의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진은 메시지다. 메시지는 소통의 수단이며 내재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다. 사진은, 문자 그대로 현실을 재현하며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사실을 검증한다.⁴⁰⁾ 도시를 기록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미지에 관한 아카이브다.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 등을 사진에 담아 기록에 남기는 작업이 바로 사진자료들이다. 벤야민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익숙함에 간과되고 무시되었던 것들,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적인 것들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의 기록의 세상은 현대 도시의 건축물, 공간, 거리에서 펼쳐지는 삶, 도시 거주민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였다. 이것은 벤야민의 저작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들이며, 그 주제들이 벤야민의 도시 기록에 담겨져 있었다.⁴¹⁾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기록해 놓음으로서 도시의 홍보와 역사자료연구, 관광가이드맵 제공, 도시계획의 자료 등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 뿐 아니라 기록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기술자료, 영화, 문학작품 등-의 활용 또한 필요하다.

둘째, 도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 내 기록의 수집·생산은 해당 도시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도시민은 기록물 생산자와 제공자들이 되어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벤야민은 스스로 도시 인상학자인 산책자가 되어서 도시의 흔적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서술한다. 그는 각각의 도시 흔적을 통해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을 통해 도시의 성격과 특징을 묘사하였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민들의 아카이브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애郷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회적, 정책적 문제의식의 함양의 도구로서 나타내어진다. 이를 위해 개인의 기억들을 기록할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필요하며, 각각의 자료들을 네트워크화하여 그 시대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자원을 기록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거점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archivist)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일상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은 다분히 ‘하찮아 보이고’, ‘자질구레한’ 일들의 연속이다.⁴²⁾ 국내에는 총체적인 형태로 구축되어있는 일상 아카이브즈가 아직 없다. 비록 주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생활세계 연구 자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산발적이고 특수한 목적 아래 구축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삶의 기록들인 일상자료들 대부분은 산일되고 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⁴³⁾ 광건홍(2011)은 ‘거시적’ 국가 아카이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록과 더불어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브 문화를 창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인 ‘일상아

40) 김민경, 사진아카이브의 표상체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2001), p.19.

41) 박규현, 전계논문, pp.7-8.

42) 함한희, 전계논문, p.11.

43) 심성보, 전계논문, pp.95-96.

카이브'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과거의 생활을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체험적 자료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안의 동성애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의 소수자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정착한 터전위에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제공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자연과 문화, 현대와 신화가 얽힌 변증법적 의미 공간으로 대도시를 역사적 기억의 모델과 연관시켰던 발터 벤야민은 대도시를 사회적 공간인 도시에 미적인 공간으로 보고 특히, 파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대도시공간의 사회적, 미적 성격에 대해 연구했다.⁴⁴⁾

이 연구에서는 벤야민의 『파시주 프로젝트』를 고찰하여 그 안에서 벤야민이 공간과 시간의 차원에서 도시를 어떻게 읽고 주제, 역사적 인물, 사회적 유형, 문화적 대상물 등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적용되어진 유사한 도시아카이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진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이야기와 특징을 찾아내어 기록하였다. 둘째, 일반 시민들에게 도시 기록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 기록을 구축하고 제공받음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였다. 셋째, 도시 내 기관이나 대학, 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물적·인적 지원체계를 제공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아카이브의 모형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방향으로 놓치기 쉬운 사진자료의 보존 및 적극적인 활용, 도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와 일상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를 제시하였다.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기억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게 해주는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할 때 아카이브는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는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기록문화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벤야민이 남기고 떠나간 그의 작업을 도시공간의 이해와 도시아카이브의 연결 도구로서 이용하여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에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기록방법으로 남길 기대한다.

44) 고나영, 축적된 시간과 장소로서의 도시 공간 이미지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2), p.11.

참고문헌

- 고나영. 축적된 시간과 장소로서의 도시 공간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2.
- 고지현. 꿈과 깨어나기. 서울 : 유로서적, 2007.
- 김민경. 사진아카이브의 표상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2001.
- 김우룡. 발터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아카이브사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2007.
- 박규현. 다공성과 도시읽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12.
-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권(2012), pp.3-44.
- 심성보. “일상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구, 제5권(2011), pp.73-92.
-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제19권, 제3호(2008), pp.103-135.
- 심혜련. “도시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2호(2012), pp.67-97.
- 심혜련. “새로운 놀이공간으로서의 대도시와 새로운 예술 체험 : 발터 벤야민 이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4권, 제1호(2003), pp.225-250.
- 심혜련. “문화적 기억과 도시공간, 그리고 미적체험: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3권, 제1호(2008), pp.69-86.
- 유광흠 등.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 이택광. “모던 보이 벤야민, 파리를 거닐다 :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읽기’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13권, 제2호(2008), pp.83-103.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 서울 : 도서출판 대운, 2005.
- 임우재. 기억의 장소로서 도시 건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3.
- 전말숙.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12.
- 조계와 아시아 데이터베이스. <<http://www.himoji.jp/database/db05>> [cited 2013. 5. 10].
- 함한희.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활용.” 영남학, 제14호(2008), pp.7-33.
- 홍준기 등. 발터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서울 : 라움, 2010.
- Buck-Morss, Susan.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역. 파주 : 문학동네, 2004.

- Connecting Histories.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 [cited 2013. 6. 19].
- Gilloch, Graeme.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역. 파주 : 효형출판, 2005.
- O'Toole, James M. 기록의 이해. 이승익 역. 서울 : (주) 진리탐구, 2004.
- Roubaud, Jacques. 어떤 도시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한다. 파리 : 갈리마르 출판사, 1999.
- Urban Archive. <<http://urbanarchives.org>> [cited 2013. 5. 1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ck-Morss, Susan. DIALECTICS OF SEEING :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Translated by Kim Jung-A. Paju : MUNHAKDONGNE Publishing, 2004.
- Chun Mal-Su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Urban Archives in Redevelopment Areas. Ph.D. diss, University of Jung Ang, 2012.
- Database of Japanese Concessions and Asia. <<http://www.himoji.jp/database/db05>> [cited 2013. 5. 10].
- Gilloch, Graeme. Walter Benjamin : Myth & Metropolis. Translated by Roh Myeong-Woo. Pasu : Hyohyung Publishing, 2005.
- Ham Han Hee, "A Study of 'Life History' and the Use of Archives." Yeong-Nam Hak, Vol.14(2008). pp.7-33.
- Hong Joon-Kee, et al. Walter Benjamin: Modernity and City. Seoul : Raum, 2010.
- Kim Min-Kyung.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System of Photographic Archive. M.A. thesis, University of Ewha, 2001.
- Kim Woo-Ryong. A study in Walter Benjamin's arcades project and archive photography. M.A. thesis, University of Jung Ang, 2007.
- Ko Ji-Hyun. Dream and Wake. Seoul : EuroSeoJyuk, 2007.
- Ko Na-Young. Study on image of city space as accumulated time and place. M.A. thesis, University of Ewha, 2012.
- Lee Taek-Gwang, "Walter Benjamin as a Modern Boy Strolling About Paris: The Arcades Project and The Politics of Reading." *Theorics Journal*, Vol.13, No.2(2008), pp.83-103.
- Lim Woo-Jae. The city architecture as a place of remembrance. M.A. thesis, University of

- Ewha, 2013.
- Moving Here. <<http://www.movinghere.org.uk>> [cited 2013. 5. 10].
- O'Toole, James M.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ranslated by Lee Seung-Eok. Seoul : JinRiTamGu, 2004.
- Park Kyu-Hyun, Reading urban/architectural space with 'Porosity.' M.A. thesis, University of Dong A, 2012.
- Roubaud, Jacques. Unfortunately, the appearance of any city changes faster than the heart of man. Paris : Gallimard, 1999.
- Seol Moon-Won,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Vol.32(2012), pp.3-44.
- Sim Hea Ryun, "Die Großstadt als der neue Spielraum und das neue Kunsterlebnis bei Walter Benjamin." *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14(1)(2003), pp.225-250.
- Sim Hea Ryun, "Spur und Spurlesen als eine Methode für das Lesen vom Stadtraum." *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Vol.23, No.2(2012), pp.67-97.
- Sim Hea Ryun, "Stadtraum, Spur und Flaneure." *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Vol.19, No.3(2008), pp.103-135.
- Sim Hea Ryun, "Die Kulturelle Erinnerung, der Stadtraum und das ästhetische Erlebni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3, No.1(2008), pp.69-86.
- Sim Sung-bo, "Possibility of the Studies on the Everyday World by Using an Archives of Ordinary Life." *Journal of ACADEMIA COREANA*, Vol.5(2011). pp.73-92.
- Urban Archive. <<http://urbanarchives.org>> [cited 2013. 5. 10].
- Yi-Fu Tuan. Space and place. Translated by Gu Dong-Hee, Sim Seung-Hee. Seoul: Dae Yoon. 2005.
- Yoo Gwang-Hum, et al.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Gyeongido: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009.

